

요나의 불평과 하나님의 자비

온 4:1~11

오늘 우리는 요나서 4장을 통해 요나와 하나님과의 싸움을 봅니다. 요나는 회개한 니느웨를 축복한 하나님께 심히 분노하며 원망하고 따집니다. "하나님 왜 니느웨를 축복하십니까? 저는 도저히 니느웨를 축복하시는 것을 참을 수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네가 화를 내는 것이 합당하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요나가 "내가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합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요나서 4장은 이렇듯 합당하다고 주장하는 요나와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관점 대결입니다.

요나가 분노하는 이유

그러면 왜 요나는 니느웨의 회개를 보고 분노하는 걸까요? 그리고 자신의 분노가 합당하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제게는 두 자녀가 있습니다. 저는 두 자녀를 동일하게 사랑합니다. 그러나 둘째인 딸에게는 더 집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딸아이는 어려서부터 기관지가 나빠서 몸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몸이 약한 딸에게 집착하듯 요나에게도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특별한 집착이 있습니다. 이것이 요나가 분노한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이스라엘이 강대국이였다면 그렇게 분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약소국이었고 끊임없는 고통과 슬픔 가운데 살아가는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는 앗수르는 대제국이었습니다. 앗수르가 없다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힘들지 않을 것입니다. 요나는 원수의 나라 앗수르 니느웨에 대해 분노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까지 힘든 압제 속에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강하게 하사 멋지게 살도록 하셔서 도움을 주는 백성이 될 수 없습니까?"라고 기도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요나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갔지만,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명령에 순종하여 니느웨로 갑니다. 그러나 막상 부강한 도시 니느웨에 가서 보니 그 마음 속에 설움과 분노를 감출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이스라엘 백성은 잘 돌보지도 않으시면서 왜 니느웨 백성은 특별한 사랑을 하시는 걸까?" 이것이 바로 요나가 하나님께 항변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니느웨의 악한 행위였을 것입니다. 요나는 스올의 뱃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이면서도 니느웨 백성이 악하다고 생각은 여전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눈으로 확인하고 나니 그 분노가 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주신 말씀, 자신이 그렇게 철저히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서 지키고 있는 율법의 말씀에 따르면 이 니느웨는 당장 멸망해도 합당한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요나는 이런 하나님의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세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라며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는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고 나서 니느웨가 회개하자 복을 주시는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 있는가?

우리도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항하듯이 요나도 자신 안에 있는 이유로 대항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자신이 옳다고 믿습니다. 요나의 입장에서 보면 요나가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요나의 주장과 판단이 맞는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는 나의 삶이 과연 올바른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한계를 가진 먼지의 티끌과 같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래부터 악한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내 생각에 아무리 옳을지라도 남이 보기에는 그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에는 맞을지 몰라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옳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내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요나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는 이유와 문제로 인해서 분노를 품고 항변하고 있다면 요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요나의 항변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왜 합당치 않은지 살펴보겠습니다.

요나서 4장 1~4절을 보십시오.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하시니라"

'너의 성내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요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니느웨에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고 그들이 회개했을 때 부흥과 복을 주시기 원한다는 것을 처음부터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하기 위해 배를 탔고 배 밑으로 갔다가 물고기 뱃속까지 갔던 것입니다. 그 스올의 뱃속에서 요나가 경험한 것은 그곳까지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요나는 마음을 바꿉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면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고 나서 고기 뱃속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나서도 상황이 바뀌자 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분변하고 판단하려 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고난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때는 뭐든지 다 순종하겠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넘기게만 해주신다면 무엇이든 하겠노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상황이 바뀌면 우리의 마음도 변합니다.

그것은 기준이 '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요나도 동일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기준이 되어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요나의 분노가 합당치 않은 것은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비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요나는 어떻게 그렇게 빨리 하나님의 자비를 잊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요나의 눈 앞에 펼쳐진 현상은 너무도 악하고 더러웠습니다.

요나는 3일 걸려 갈 수 있는 길인 니스웨를 하루 만에 다니며 복음을 전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스웨가 무너지리라' 요나는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다니지만, 니스웨 사람들을 볼 때마다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악하고 더러운 사람들을 살려 주시려고 하시는 걸까' 그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종종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요나가 겪은 상황이 바로 그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단지 니스웨가 악한 상황이라고 상상했을 때는 그저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을 알면 알수록 더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아무리 큰 것이라도 나와 상관 없으면 너그럽습니다. 그러나 나와 상관 있으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참지 못합니다. 요나가 그와 같은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요나는 니스웨의 악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해 버립니다. 그랬기에 요나는 하나님께서 원수의 땅을 용서하시고 복주시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니스웨의 악을 본 요나는 자신이 심판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요나와 같은 심판자가 되지 마십시오. 공평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수 갚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7~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주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쏘아 놓으니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축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영혼 향한 하나님 마음' 모르는 요나

요나의 잘못은 자신의 생각에 빠져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지식적으로 하나님에 대해 많이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래 참으시고 끊임없이 그분의 사랑을 모든 민족에게 나타내십니다. 요나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행동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가 순종하면 그분의 역사를 깨닫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음성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복을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순종했을 때 그는 모든 인류를 구원 가운데 이끄는 방주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능력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요나는 자기의 우물 안에

갈혀서 자기만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말로 하나님께 항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몸으로 대들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요나가 성에서 나가서 그 성 동편에 앉되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 앉아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 하니라

요나는 자신이 그 성을 지켜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중대한 실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들이 회개했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요나가 할 일은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가르치고 예비하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을 포기한 요나는 성 밖으로 빠져나와 자신만을 위한 초막을 짓습니다.

요나는 니느웨의 성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곳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였지만 요나는 그것을 원치 않고 자기를 위한 초막을 짓고 구경꾼으로 전략해 버립니다.

나를 통해 예수 드러낼 때 세상 구원할 수 있어

비판하고 평가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바로잡는 것은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곳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곳에 두시고 원하시는 것은 요나처럼 구경꾼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우리에게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어떤 힘일까요? 물론 지혜, 경험, 돈, 권세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것으로는 세상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원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드러날 때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한다고 말하면서 자기를 죽이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입니다. 요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다고 말하면서도, 사실 그 내면에는 이스라엘 백성도, 니느웨 백성도 아닌 자기 아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게 시위하는 요나에게 하나님은 한 사건을 통해 그가 얼마나 개인주의이며 이기주의인지 깨닫게 하십니다. 6~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 넝쿨을 준비하사 요나 위에 가리우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들이 지게하며 그 괴로움을 면케 하려 하심이었던라 요나가 박 넝쿨을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 넝쿨을 씹게 하시매 곧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매 요나가 혼곤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단어를 발견합니다. 6절을 보면 "요나가 박넝쿨을 인하여 심히 기뻐하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나가 기뻐한다는 표현이 처음으로 나와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도, 고기뱃속에서 나왔을 때도 니느웨로 갈 때에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만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음에도 그의 영혼에 보람과 만족이 없었습니다. 그런 요나가 박 넝쿨 하나로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나였습니다. 민족을 위하는 자신은 의롭고 하나님은 불공평하다고 말하는 그의 내면에는 결국 '자기'만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모두 상관없고 자기에게 있는 박 넝쿨이 더 소중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

나눔은 요나가 성을 내며 덤벼들었지만 진노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오히려 요나가 깨달을 수 있도록 박 넝쿨과 벌레, 동풍과 뜨거운 햇빛을 준비하셨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 넝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찌라도 합당하나다”

드디어 요나는 자기를 고발하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니느웨의 부흥을 보며 했던 말과 동일합니다. 이것을 들은 하나님께서 요나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십니다. 10절과 1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 넝쿨을 네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십이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하나님의 반대 질문은 무엇입니까? "네가 아끼는 것이 무엇인가? 그렇게 분노했던 것이 무엇인가?"입니다. 민족의 부흥도, 공의도 아닙니다. 결국 그가 아끼던 것은 '자신의 유익과 편리, 의와 체면'이었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십니다.

‘네가 아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서는 요나에게 니느웨를 구원하시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시든 박 넝쿨로 인해 성내는 요나에게 12만 명이 있는 성읍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가 합당합니까, 하나님이 합당합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질문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고 물으십니다. 요나는 대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요나가 되어 하나님께 대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함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대답하기 원합니다.

나는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며

나의 우매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관점에서

나와 내 인생, 내 이웃을 바라볼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박 넝쿨처럼 사라지는 풀과 같은 인생에

연연하지 않고

영원하시고 참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사로잡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온누리신문」 제공 - <http://www.onnurinews.com/>